

곡성기차마을 인근 구도심, 낭만·청춘거리로 변신 눈앞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 사업 올해 말 완공 예정 영화 콘셉 거리·공방 10개소 통해 색다른 분위기 변신 시도 청춘어람센터 조성해 청년상인·기획자 커뮤니티 공간 활용

곡성군 읍내 구도심이 영화를 콘셉트로 새롭게 변신하기 시작했다.

곡성군은 국토부 국비 사업에 선정돼 2018년부터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이하 ‘청춘어람’)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크게 경관 정비와 청년창업이라는 2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관 정비는 영화를 콘셉트로 560m에 달하는 도로와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읍내24길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청년창업의 경우 10개소의 공방과 청춘어람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곡성군은 주민설명회,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0개소의 공방 창업자를 모집해 공방 조성을 거의 마무리했다.

그리고 경관 정비를 위한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와 청년커뮤니티 공간인 청춘어람센터는 지난 6

월 최종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다. 곡성군은 올해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군은 청춘어람 조성이 완료되면 10개소의 특색 있는 공방들과 함께 해당 지역 일대가 새로운 활력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록달록한 상가 외벽과 영화 관련 조형물, 그리고 추억을 느끼게 하는 감성적인 거리 경관을 통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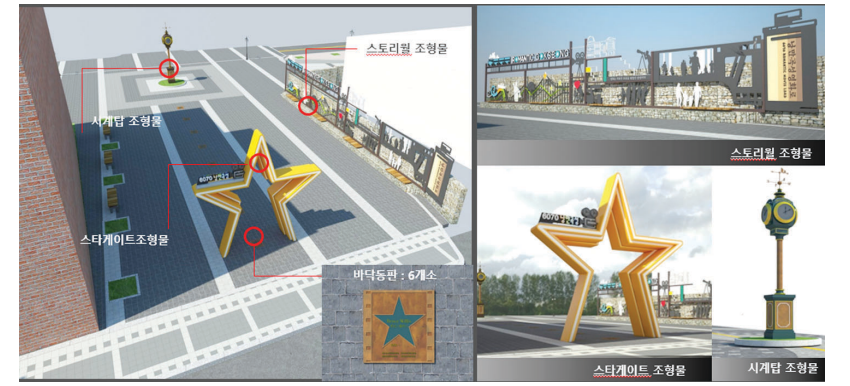
움을 준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공방마다 독특한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혹한다. 인근에는 곡성군 관광명소인 기차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춘어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기반 구축 외에 상권을 살려보고자하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낭만공방 창업주들은 지난 5월 협동조합을 설립을 완료했다.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축제 기간에는 낭만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청춘어람센터 1층은 공유공방 및 팝업 스토어, 회의실 등으로 활용된다. 2층은 청년 기획자들이 입주해 지역 청년들과



구도심 상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거리환경 조성에 앞서 곡성군은 올 7월까지 공방 10개소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중 공방 개장 행사를 추진할 생각이다.

현재 공방 조성은 토란주 가공점 시향기를 비롯해 8개소가 완료되어 일부 운영 중이며, 2개소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방 창업주 A씨는 “오랜 준비 끝에 출발점 앞까지 왔다. 좋은 상품을 즐겁게 만들어 조합 창업주들과 함께 거리 일대를 감성과 문화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성 황룡강 노란꽃창포 단지 “더 아름다워진다”

군, 4km 구간에 노란꽃창포 20만본 추가 식재



장성 황룡강 노란꽃창포 단지가 더 풍성한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은 따르면, 황룡강 4km 구간에 노란꽃창포 20만본이 추가로 식재될 예정이다. 식재 예정지는 취암천을 비롯한 황룡강 일원이다.

노란꽃창포는 일반 수생식물에 비해 5배 가량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알려져 있다. 또 노란 나비를 연상시키는 자태는 군

락을 이뤘을 때 아름다움이 더욱 배가된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 7월 민선 7기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황룡강 ‘꽃창포 시대’를 선언하고, 2019년 32만여 본의 노란꽃창포를 황룡강변 1.7km 구간에 식재했다.

이후 작년 가을 링링, 타파 등 세 번의 태풍을 견뎌내고 안정해 올봄 개화에 성공했다. 지난 5월, 약 300만 송이의 노란꽃창포가 황룡강을 따라 만개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밤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황룡 ‘가온’의 전설을 지닌 황룡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색채 마케팅을 펼친 ‘엘로우시티 장성’의 모티브가 된 곳이다.

장성군은 잦은 범람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던 이곳에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치수 기능을 강화했으며, 군민과 함께 꽃을 심어 ‘노란꽃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작년까지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기록하며, 전남 대표 축제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장성군은 황룡강의 국가정원 지정은 목표로 한 ‘황룡강 관광 명소화 및 지방정원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란꽃창포 단지를 조성해, 황룡강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해갈 계획”이라면서 “국토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황룡강 정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성=박종영 기자

“여름철 건강·식사 꼼꼼히 챙기세요”

담양군, 경로식당 운영 중지에 따른 대체급식 추진

담양군은 광주·전남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식당 68개소의 운영 중단과 관련 대체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383명에게 지역자활센

터,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밀반찬(173명), 라면·김·빵(167명), 도시락(43명) 등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또한 대체급식 미지원 노인세대 600명을 위해 읍면공무원, 이장 등이 일 1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결식 위기 시 거점

급식소 2개소와 연계한 대체급식을 지원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식당 이용이 중지되어 복지공백이 우려된다”며 “취약계층의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꼼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농업인 교육 ‘코로나19 예방’ 비대면으로

공간협소·수강 인원 제한 등 물리적 한계 해소

나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농업인 및 소비자 관련 전체 교육을 ‘온택트’(Ontact)로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화상) 소통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 농촌진흥과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연구회 정보화 △우리

쌀 이용 단체급식 △귀농·귀촌인 영농기초기술 보급 △유기농기능사반 교육 등이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상교육은 이론, 요리시연, 현장기술지도, 쌍방향 질의응답 등 대면 못지않은 생동감 있는 영상을 구현하고 공간 협소에 따른 인원제한 등 집합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등 다수 수강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강생 김 모 씨는 “코로나 걱정

으로 현장 교육에 걱정이 많았는데 집과 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어 만족감이 높다”며 “분주한 영농철에도 화상교육을 이용하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상인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비대면 화상교육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수강생들의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도 선진농업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일상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